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37 주차 (16:12~33)

(2015년 10월 11일 - 2015년 10월 17일)

(제3권 38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38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10 월 11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리의 영이 오면 (주일)

### 오늘의 본문 (요 16:12~18)

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17.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18.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 원문해석하기

- (12절)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다 (Ἐτι πολλὰ ἔχω ὑμῖν λέγειν.)  
그러나 지금은 능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ἀλλ' οὐ δύνασθε βαστάζειν ἄρτι.)
- (13절) 그러나 언제든지 그 곧 진리의 영이 오면 (ὅταν δὲ ἔλθῃ ἐκεῖνος,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ὀδηγήσει ὑμᾶς ἐν τῇ ἀληθείᾳ πάση.)  
왜냐하면 그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을 말하지 않고 (οὐ γὰρ λαλήσει ἄφ' ἑαυτοῦ.)  
그가 들은 것만을 말할 것이며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ἀλλ' ὅσα ἀκούσει λαλήσει καὶ τὰ ἐρχόμενα ἀναγγελεῖ ὑμῖν.)
- (14절) 그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ἐκεῖνος ἐμὲ δοξάσει.)  
왜냐하면 그가 나로부터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ὅτι ἐκ τοῦ ἐμοῦ λήμψεται καὶ ἀναγγελεῖ ὑμῖν.)
- (15절)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πάντα ὅσα ἔχει ὁ πατήρ ἐμά ἐστιν.)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διὰ τοῦτο εἶπον)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ὅτι ἐκ τοῦ ἐμοῦ λαμβάνει καὶ ἀναγγελεῖ ὑμῖν.)
- (16절)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Μικρὸν καὶ οὐκέτι θεωρεῖτέ με.)  
그리고 다시 잠시 후 너희가 나를 볼게 될 것이다 (καὶ πάλιν μικρὸν καὶ ὄψεσθέ με.)
- (17절) 그러자 그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εἶπαν οὖν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πρὸς ἀλλήλους.)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τί ἐστιν τοῦτο ὃ λέγει ἡμῖν.)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잠시 후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μικρὸν καὶ οὐ θεωρεῖτέ με, καὶ πάλιν μικρὸν καὶ ὄψεσθέ με.)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καί· ὅτι ὑπάγω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 (18절)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냐?" (ἔλεγον οὖν· τί ἐστιν τοῦτο [ὃ λέγει] τὸ μικρὸν.)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οὐκ οἶδαμεν τί λαλεῖ.)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2~13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지만 지금 제자들의 상태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진리의 영이 오면 그 진리의 영이 제자들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을 말하지 않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할 것이며 다가 올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 줄 말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외에도 해 줄 말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지요.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때부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겨우 몇 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가 같은 날 밤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은 고별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고별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것이며,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옮겨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주님의 친구라는 사실도 알려 주시며 그 때문에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이기에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바로 ‘이별’과 ‘핍박’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별과 핍박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영 즉,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요?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곧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을 말하지 않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할 것이며 다가 올 것들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은 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서 진리라는 단어의 뜻이 이 세상의 일을 설명하는 참된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왜곡되지 않고 이 땅에 그대로 계시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늘에 존재하던 그것이 이 세상에 그대로 계시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올바른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좋고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스스로를 일컬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분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가 들은 것을 알려주고 또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

한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알려 주실 그 내용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후에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스스로 그만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즉 일러줄 것이 너무도 많지만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시며, 오직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그 때에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14절을 보겠습니다.

“<sup>10</sup>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sup>11</sup>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sup>12</sup>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sup>13</sup>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sup>14</sup>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10-14).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사정’이라는 말은 ‘그에게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속한 인간의 것을 인간의 사정,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정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다든지, 또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지 하는 식의 신비한 체험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인간들과 소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체험하는 것이며 설사 그런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개입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의 인생이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치달고 있거나 또는 어느 순간 문득 자신이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벗어나 있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그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게 되면 그런 상황을 통해 자신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초월하셔서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sup>2</sup>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족하시오며<sup>3</sup>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sup>4</sup>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sup>5</sup>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sup>6</sup>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sup>7</sup>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sup>8</sup>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sup>9</sup>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sup>10</sup>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sup>11</sup> 내가 흑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sup>12</sup>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취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시 139:1-12).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내게 벌어진 모든 상황은 어찌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려는 그분의 뜻일 지도 모릅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렇기에 나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떨쳐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가요? 아니면 너무 행복해서 흑시나 그 행복이 사라질까봐 겁이 나나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월요일)

### 오늘의 본문 (요 16:12~18)

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17.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18.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 원문해석하기

- (12절)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다 (Ἐτι πολλὰ ἔχω ὑμῖν λέγειν.)  
그러나 지금은 능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ἀλλ' οὐ δύνασθε βαστάζειν ἄρτι.)
- (13절) 그러나 언제든지 그 곧 진리의 영이 오면 (ὅταν δὲ ἔλθῃ ἐκεῖνος,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ὀδηγήσει ὑμᾶς ἐν τῇ ἀληθείᾳ πάση.)  
왜냐하면 그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을 말하지 않고 (οὐ γὰρ λαλήσει ἄφ' ἑαυτοῦ.)  
그가 들은 것만을 말할 것이며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ἀλλ' ὅσα ἀκούσει λαλήσει καὶ τὰ ἐρχόμενα ἀναγγελεῖ ὑμῖν.)
- (14절) 그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ἐκεῖνος ἐμὲ δοξάσει.)  
왜냐하면 그가 나로부터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ὅτι ἐκ τοῦ ἐμοῦ λήμψεται καὶ ἀναγγελεῖ ὑμῖν.)
- (15절)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πάντα ὅσα ἔχει ὁ πατὴρ ἐμὰ ἐστίν.)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διὰ τοῦτο εἶπον)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ὅτι ἐκ τοῦ ἐμοῦ λαμβάνει καὶ ἀναγγελεῖ ὑμῖν.)
- (16절)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Μικρὸν καὶ οὐκέτι θεωρεῖτέ με.)  
그리고 다시 잠시 후 너희가 나를 볼게 될 것이다 (καὶ πάλιν μικρὸν καὶ ὄψεσθέ με.)
- (17절) 그러자 그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εἶπαν οὖν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πρὸς ἀλλήλους.)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τί ἐστὶν τοῦτο ὃ λέγει ἡμῖν.)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잠시 후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μικρὸν καὶ οὐ θεωρεῖτέ με, καὶ πάλιν μικρὸν καὶ ὄψεσθέ με.)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καί· ὅτι ὑπάγω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 (18절)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냐?" (ἔλεγον οὖν· τί ἐστὶν τοῦτο [ὃ λέγει] τὸ μικρὸν.)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οὐκ οἶδαμεν τί λαλεῖ.)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알릴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즉 제자들에게 보여 주고 알려 주는 모든 메시지가 그분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받아서 말하고 알려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위 하나님 상호간에 어떤 질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이나 행위는 자기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명령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오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생겨난 교회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이 땅에 남아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든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구체적으로는 각종 사역이나 은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역이나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한낱 인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교회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지 20여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마침내는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과 그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처하여 그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완성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복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안으로 성령님이 찾아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셔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사건임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의 두 번째 의미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과 ‘주’는 서로 함께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송아지나 염소, 양 같은 짐승을 잡아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백성들은 흠없는 짐승들을 끌고와서 그것을 잡아 성전에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해 속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 대속 제물을 ‘주’로 삼지는 않았습니 다. 그런데 어느새 제사가 일상이 되다보니 사람들은 그 양들이 죽어 가는 것을 보고도 더 이상 가슴 아파하거나 슬퍼하지도 않게 되어 버렸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 예표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 제물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가 따라야 할 ‘주’이심을 깨닫고 하고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첫 메시지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sup>29</sup>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sup>30</sup>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sup>31</sup>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sup>32</sup>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sup>33</sup>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sup>34</sup>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sup>35</sup>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sup>36</sup>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행 2:29-36).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은사로 부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에 부어 주시는 각종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계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성령의 역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성령의 은사도 특정한 사람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sup>42</sup>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sup>13</sup>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sup>14</sup>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sup>15</sup>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sup>16</sup>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sup>17</sup>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sup>18</sup>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sup>19</sup> 만일 다 한 지체 뿐이면 몸은 어디뇨 <sup>20</sup>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sup>21</sup>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sup>22</sup>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sup>23</sup>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sup>24</sup>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sup>25</sup>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sup>26</sup>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sup>27</sup>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12-27).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자신이 뭔가 더 신령하고 믿음이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의도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도 합니다. 성령 체험을 마치 훈장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설명은 정반대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은사를 나누어 준 것은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귀하지 않아 보이는 지체를 귀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하고 아름답고 장성한 지체는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바로 전 지체가 각 부분에서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개인들을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로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예수님의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내의 어려운 지체들을 세우고 영적으로 지친 영혼들을 돌보게 하도록 나를 성숙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한번 둘러 보세요. 당신 곁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나요? 그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제자들의 세 가지 의문 (화요일)

### 오늘의 본문 (요 16:12~18)

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17.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18.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 원문해석하기

- (12절)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다 (Ἐτι πολλὰ ἔχω ὑμῖν λέγειν.)  
그러나 지금은 능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ἀλλ' οὐ δύνασθε βαστάζειν ἄρτι.)
- (13절) 그러나 언제든지 그 곧 진리의 영이 오면 (ὅταν δὲ ἔλθῃ ἐκεῖνος,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ὀδηγήσει ὑμᾶς ἐν τῇ ἀληθείᾳ πάση.)  
왜냐하면 그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을 말하지 않고 (οὐ γὰρ λαλήσει ἄφ' ἑαυτοῦ.)  
그가 들은 것만을 말할 것이며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ἀλλ' ὅσα ἀκούσει λαλήσει καὶ τὰ ἐρχόμενα ἀναγγελεῖ ὑμῖν.)
- (14절) 그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ἐκεῖνος ἐμὲ δοξάσει.)  
왜냐하면 그가 나로부터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ὅτι ἐκ τοῦ ἐμοῦ λήμψεται καὶ ἀναγγελεῖ ὑμῖν.)
- (15절)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πάντα ὅσα ἔχει ὁ πατήρ ἐμά ἐστιν.)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διὰ τοῦτο εἶπον)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ὅτι ἐκ τοῦ ἐμοῦ λαμβάνει καὶ ἀναγγελεῖ ὑμῖν.)
- (16절)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Μικρὸν καὶ οὐκέτι θεωρεῖτέ με.)  
그리고 다시 잠시 후 너희가 나를 볼게 될 것이다 (καὶ πάλιν μικρὸν καὶ ὄψεσθέ με.)
- (17절) 그러자 그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εἶπαν οὖν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πρὸς ἀλλήλους.)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τί ἐστιν τοῦτο ὃ λέγει ἡμῖν.)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잠시 후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μικρὸν καὶ οὐ θεωρεῖτέ με, καὶ πάλιν μικρὸν καὶ ὄψεσθέ με.)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καὶ ὅτι ὑπάγω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 (18절)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냐?" (ἔλεγον οὖν· τί ἐστιν τοῦτο [ὃ λέγει] τὸ μικρόν.)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οὐκ οἶδαμεν τί λαλεῖ.)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후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또 잠시후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안장될 것이고 삼일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단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함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순전히 지금의 우리 믿음으로 그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주고 받은 세 번의 연속된 질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되는 질문은 그 당시 제자들끼리 서로 주고 받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질문은 믿는 자들의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잠시 후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수수께끼 같은 이 말을 듣고 난 후 제자들이 연속적으로 던진 세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잠시 후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 잠시 다른 곳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려는가 보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가장 타당한 생각일 것입니다. 이런 추측은 실제로 제자들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종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요7:33-34)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을 들은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 7:35-36).

지금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는 것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서로 나눈 말을 보면 그내용이 너무도 유사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그런 의구심을 품었는지 그 이유를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여를 함께 했으며,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 거라 여기지만 사실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

숨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정, 예수님께 속한 일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인간들의 지식으로 습득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 직전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질문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 독자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반드시 가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있느냐?”라는 질문이지요. 이 말은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며 승천하신 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 자체에 심오한 의미가 들어 있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던진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원래 영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벗지 않으시고 몸을 그대로 지닌 채 제자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단지 이 땅의 화목 제물에 불과하셨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필요도 없고 그 육신이 무덤에서 썩어도 그 뿐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육신이 필요없는 영이시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 잠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왜 이런 거추장스런 인간의 몸을 벗지 않으시고 굳이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희생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믿는 자들을 온전히 의로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려 속죄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 희생 제물을 받는 제단은 하늘에 있으며 그 제단에는 땅의 제물이 아닌 하늘에 속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 것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sup>22</sup>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sup>23</sup>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으로 <sup>24</sup>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같리지 아니하나니 <sup>25</sup>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sup>26</sup>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sup>27</sup>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sup>28</sup>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히 7:22-28).

“<sup>22</sup>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sup>23</sup>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sup>24</sup>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sup>25</sup>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sup>26</sup>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므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히 9:22-26).

결국 예수님이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자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났기에 이제 모든 일은 성령님께 넘기고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지요.

제자들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 모든 사안이 긴박하게 진행될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충분히 자신을 계시하였으며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사명이 남아 있지 않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부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긴박하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기며 남다른 의미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 임박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별은 제자들과 나아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 일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승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일 말입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너희는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수요일)

### 오늘의 본문 (요16:19~24)

19.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 원문해석하기

- (19절) 예수께서 그들이 묻고자 하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Εγγω [ὁ] Ἰησοῦς ὅτι ἤθελον αὐτὸν ἐρωτᾶν,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내가 말한 이것에 대하여 서로 서로 찾으려 하느냐? (περὶ τούτου ζητεῖτε μετ’ ἀλλήλων ὅτι εἶπον·)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μικρὸν καὶ οὐ θεωρεῖτέ με, καὶ πάλιν μικρὸν καὶ ὄψεσθέ με.)
-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너희들은 슬피 울며 애통해 할 것이다 (ὅτι κλαύσετε καὶ θρηνησετε ὑμεῖς)  
그러나 이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ὁ δὲ κόσμος χαρήσεται·)  
너희는 슬퍼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ὕμεῖς λυπηθήσεσθε, ἀλλ’ ἡ λύπη ὑμῶν εἰς χαρὰν γενήσεται.)
- (21절) 여자가 언제가 해산하게 되면 고통을 가진다 (ἡ γυνὴ ὅταν τίκτη λύπην ἔχει)  
왜냐하면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ὅτι ἤλθεν ἡ ὥρα αὐτῆς·)  
그러나 언제든지 아이를 낳았을 때 (ὅταν δὲ γεννήσῃ τὸ παιδίον,  
그 기쁨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 (οὐκέτι μνημονεῖει τῆς θλίψεως διὰ τὴν χαρὰν)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ὅτι ἐγενήθη ἄνθρωπο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슬픔을 갖고 있다 (καὶ ὑμεῖς οὖν νῦν μὲν λύπην ἔχετε·)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πάλιν δὲ ὄψομαι ὑμᾶς)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καὶ χαρήσεται ὑμῶν ἡ καρδιά,  
그리고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καὶ τὴν χαρὰν ὑμῶν οὐδεὶς αἶρει ἀπ’ ὑμῶν.)

- (23절)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나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Καὶ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ἐμὲ οὐκ ἐρωτήσετε οὐδέν.)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너희가 무엇이든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께) 구하면 그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ἂν τι αἰτήσητε τὸν πατέρα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δώσει ὑμῖν.)
- (24절) 지금까지 너희들은 전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ἕως ἄρτι οὐκ ἤτήσατε οὐδὲν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구하라 그리고 받을 것이다 (αἰτεῖτε καὶ λήμψεθε.)  
그 결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ἵνα ἡ χαρὰ ὑμῶν ᾗ πεπληρομένη.)

## 하나님의말씀 이해하기

19-20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품고 있는 의문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서로 서로 찾으려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슬피 울며 애통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슬퍼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이후에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진실을 외면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끼리 질문하고 답을 구하려 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인간으로부터는 절대로 그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20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피 울며 애통해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냥 슬피만 할 것이 아니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슬피 울며 애통해 하는 이유는 잠시 후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고 반대로 세상은 동일한 이유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세상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의 지위를 위협했으며, 나아가 그들이 중심이 되어 탄탄하게 구축해온 유대 공동체를 뿌리째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제거하면 그 동안의 혼란은 단번에 사라질 것이고 흔들렸던 자신들의 입지도 한층 공고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죽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던 모든 소망들이 일시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갈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셔서 구세주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들의 지위를 완전히 뒤바꾸어 주실 능력있는 분으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겐 손아귀에 거의 다 넣었다 생각했던 권세와 부귀영화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실제로 제자들에게 다가온 슬픔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세상의 구세주였으며,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아픔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들에게 엄청난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 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으시고 가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잠깐 동안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실망감만 가득 안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이 슬픔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내재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순간마다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슬픔과 기쁨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떨어져 홀로 존재하느냐입니다. 제자들의 슬픔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체포되어 수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기인한 슬픔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은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 가실 때에도 그들은 이전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차분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그들을 찾아 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21-22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언제가 해산하게 되면 고통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슬픔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기쁨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은 이 모든 사건들이 2000년 전에 종료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물론 한번 임한 성령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제자들이 겪은 그런 이별의 슬픔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

실뿐만 아니라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 오셔서 그 복음의 의미를 상세히 알려 주시고 우리를 그 복음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당해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이 자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불청객처럼 찾아온 병마와 소망없는 싸움을 하게 될 때도 있지요. 삶의 낙이었던 자식들이 젊은 혈기에 궤도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갖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 자신감 없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감이 예고없이 찾아 올 때에는 골방에 숨어 나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 힘든 현실과 마주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문득 문득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그 후에 너무도 큰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 주실 거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의 슬픔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어두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삶이 녹록지 않지요? 그래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기에 안심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게 될 것이다 (목요일)

### 오늘의 본문 (요16:19~24)

19.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 원문해석하기

- (19절) 예수께서 그들이 묻고자 하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Ἐγὼ [ὁ] Ἰησοῦς ὅτι ἤθελον αὐτὸν ἐρωτᾶν,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내가 말한 이것에 대하여 서로 서로 찾으려 하느냐? (περὶ τούτου ζητεῖτε μετ' ἀλλήλων ὅτι εἶπον·)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μικρὸν καὶ οὐ θεωρεῖτέ με, καὶ πάλιν μικρὸν καὶ ὄψεσθέ με.)
-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너희들은 슬피 울며 애통해 할 것이다 (ὅτι κλαύσετε καὶ θρηνησετε ὑμεῖς)  
그러나 이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ὁ δὲ κόσμος χαρήσεται·)  
너희는 슬퍼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ὕμεῖς λυπηθήσεσθε, ἀλλ' ἡ λύπη ὑμῶν εἰς χαρὰν γενήσεται.)
- (21절) 여자가 언제가 해산하게 되면 고통을 가진다 (ἡ γυνὴ ὅταν τίκτη λύπην ἔχει)  
왜냐하면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ὅτι ἤλθεν ἡ ὥρα αὐτῆς·)  
그러나 언제든지 아이를 낳았을 때 (ὅταν δὲ γεννήσῃ τὸ παιδίον,  
그 기쁨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 (οὐκέτι μνημονεῖει τῆς θλίψεως διὰ τὴν χαρὰν)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ὅτι ἐγενήθη ἄνθρωπο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슬픔을 갖고 있다 (καὶ ὑμεῖς οὖν νῦν μὲν λύπην ἔχετε·)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πάλιν δὲ ὄψομαι ὑμᾶς)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καὶ χαρήσεται ὑμῶν ἡ καρδιά,  
그리고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καὶ τὴν χαρὰν ὑμῶν οὐδεὶς αἶρει ἀπ' ὑμῶν.)

- (23절)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나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Καὶ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ἐμὲ οὐκ ἐρωτήσετε οὐδέν.)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너희가 무엇이든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께) 구하면 그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ἂν τι αἰτήσητε τὸν πατέρα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δώσει ὑμῖν.)
- (24절) 지금까지 너희들은 전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ἕως ἄρτι οὐκ ἤτήσατε οὐδὲν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구하라 그리고 받을 것이다 (αἰτεῖτε καὶ λήμψεθε.)  
그 결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ἵνα ἡ χαρὰ ὑμῶν ᾗ πεπληρομένη.)

## 하나님의말씀 이해하기

23-2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무엇이든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전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그 결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언뜻 보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기도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다’라는 단어와 ‘요청하다’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여 얻어내는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 ‘프로슈코마이’ (προσεύχομα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마 6:9)고 말씀 하시며 소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을 포함하여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이 단어만 고유한 의미의 ‘기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두 번째 단어는 ‘찾으라’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제테오’(ζητέω)입니다. 이 단어는 숨겨진 것이나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찾는 대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길을 찾거나 진리를 찾거나 잃어버린 뭔가를 찾을 때에는 반드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sup>7</sup>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sup>8</sup>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8).

참고로 찾는다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넓어서 굳이 열심히 찾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사실 찾지 않고도 보이는 길은 진짜 길이 아닙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14).

여기서 ‘찾는 이’란 바로 ‘열심히 뭔가를 찾다가 드디어 발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길이 험악하거나 깊이 숨겨져 있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이 너무 좁고 잘 보이지 않아서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너희가 찾아내라(발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진리, 빛, 생명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하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단어는 ‘아이테오’(αἰτέω)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24절에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말년에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와해될 것 같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깐요. 제자들은 그 약속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끝내 그들의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No’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했기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후렴구를 붙입니다. 적어도 개신교인이라면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약속 즉,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실제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테오’(αἰτέω)한 것은 반드시 지켜졌다는 말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필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그 약속은 이미 이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테오’(αἰτέω)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고별사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약속은 정말로 이행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의문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무작정 예수님의 약속이니깐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구하면 다 된다는 식의 아전인수격식 성경 해석은 맹목적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테오’(αἰτέω)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살펴 본 바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항상 성령님과 관련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성령님과 연관지어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미 봤거나 알고 있으며, 이미 손에 쥔 것을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구했으며 어떠한 응답을 받았을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한 것도, 자식이 속을 썩이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불치병으로 인한 고통도 아니었지요. 그들이 고민하고 힘들어 했던 부분, 그들이 직면했

던 문제는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바로 이것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해야 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런 절박한 현실에 직면한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분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는 힘, 곧 예수님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든 나의 사정 모두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게다가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진 않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빈말일 뿐이고 실제로는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신 원망스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온전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나요? 오늘 조용히 이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금요일)

### 오늘의 본문 (요16:25~33)

25.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 하심이니라
28.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 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삽나이다
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 원문해석하기

- (25절) 내가 비유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Ταῦτα ἐν παροιμίαις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때가 이를 것이다 (ἔρχεται ὥρα)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을 [때가] (ὅτε οὐκέτι ἐν παροιμίαις λαλήσω ὑμῖν·)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 대하여 확실하게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ἀλλὰ παρρησίᾳ περὶ τοῦ πατρὸς ἀπαγγεῖλω ὑμῖν·)
- (26절) 그 날에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αἰτήσεσθε·)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καὶ οὐ λέγω ὑμῖν)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한다고 (ὅτι ἐγὼ ἐρωτήσω τὸν πατέρα περὶ ὑμῶν·)
- (27절)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αὐτὸς γὰρ ὁ πατήρ φιλεῖ ὑμᾶς·)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ὅτι ὑμεῖς ἐμὲ περιλήκατε καὶ πεπιστεύκατε ὅτι ἐγὼ παρὰ [τοῦ] θεοῦ ἐξῆλθον·)
- (28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으로 들어 왔다  
(ἐξῆλθο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ἐλήλυθα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다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πάλιν ἀφήμι τὸν κόσμον καὶ πορεύομ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 (29절) 그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Λέγουσι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보소서 지금은 당신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ἴδε νῦν ἐν παρρησίᾳ λαλεῖς καὶ παροιμίαν οὐδεμίαν λέγεις·)
- (30절) 지금 우리가 알았습니다 (νῦν οἶδομεν)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ὅτι οἶδας πάντα καὶ οὐ χρείαν ἔχεις ἵνα τίς σε ἐρωτᾷ·)

이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습니다 (ἐν τούτῳ πιστεύομεν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ξῆλθες)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Ἰησοῦς·)

너희가 지금 믿느냐? (ἄρα πιστεύετε·)

(32절) 보라 때가 왔고 이르렀다 (ἰδοὺ ἔρχεται ὥρα καὶ ἐλήλυθεν)

그결과 너희들은 각각 너희들의 장소로 흩어질 것이다 (ἵνα σκορπισθῆτε ἕκαστος εἰς τὰ ἴδια)

그리고 나를 홀로 남겨 놓을 것이다 (καὶ ἐμὸν ἀφήτε·)

그러나 나는 홀로가 아니니 (καὶ οὐκ εἰμι μόνος·)

이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ὅτι ὁ πατήρ μετ' ἐμοῦ ἐστιν·)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 (ἵνα ἐν ἐμοὶ εἰρήνην ἔχητε·)

너희가 이 세상 안에서 환란을 당한다 (ἐν τῷ κόσμῳ θλίψιν ἔχετε·)

그러나 담대하라 (ἀλλὰ θαρσεῖτε·)

내가 세상을 이겼다 (ἐγὼ νενίκηκα τὸν κόσμο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5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비유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너희에게 말할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비유란 어떤 현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속뜻을 유추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헛갈리게 해서 골탕먹이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up>40</sup>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sup>11</sup>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sup>12</sup>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sup>13</sup>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sup>14</sup>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sup>15</sup>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sup>16</sup>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sup>17</sup>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 13:10-17).

예수님이 씨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이 말



씀하시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있는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자는 그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상일텐데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 아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니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 가관입니다. 무릇 있는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자들은 그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말이지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즈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빈부격차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고 풍부한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도,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도 유대인들은 그 기적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보다도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는 전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율법과 전통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역할을 한 셈이지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리가 비유로 가리워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기록이 당시의 언어와 당시의 문학적 기법으로 기술되어 있는데다 당시의 사회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누구나 ‘복음’의 실제적 진실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그 내용을 믿고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시대지만 슬프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조차 포기해 버립니다. 성경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게다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중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동떨어진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미 만천하에 밝히 드러난 그 진리를 오히려 다른 종교적 열심이나 신비한 체험들로 포장하여 교묘하게 그 실제적 진실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6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sup>17</sup>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sup>18</sup>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sup>19</sup>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6-19).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sup>2</sup>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sup>3</sup>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

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sup>4</sup>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sup>5</sup>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sup>6</sup>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sup>7</sup>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데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sup>8</sup>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sup>9</sup>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sup>10</sup>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sup>11</sup>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sup>12</sup>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엡 3:1-12).

결국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편지로 쓴 것을 읽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깊은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체험으로 되는 것도,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만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신은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을 삶의 잣대로 삼고 있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너희가 직접 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된다 (토요일)

### 오늘의 본문 (요16:25~33)

25.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28.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삽나이다
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 원문해석하기

- (25절) 내가 비유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Ταῦτα ἐν παροιμίαις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때가 이를 것이다 (ἔρχεται ὥρα)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을 [때가] (ὅτε οὐκέτι ἐν παροιμίαις λαλήσω ὑμῖν·)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 대하여 확실하게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ἀλλὰ παρρησίᾳ περὶ τοῦ πατρὸς ἀπαγγεῶ ὑμῖν·)
- (26절) 그날에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αἰτήσεσθε·)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καὶ οὐ λέγω ὑμῖν)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한다고 (ὅτι ἐγὼ ἐρωτήσω τὸν πατέρα περὶ ὑμῶν·)
- (27절)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αὐτὸς γὰρ ὁ πατήρ φιλεῖ ὑμᾶς·)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ὅτι ὑμεῖς ἐμὲ περιλήκατε καὶ πεπιστεύκατε ὅτι ἐγὼ παρὰ [τοῦ] θεοῦ ἐξῆλθον·)
- (28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으로 들어 왔다  
(ἐξῆλθο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ἐλήλυθα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다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πάλιν ἀφήμι τὸν κόσμον καὶ πορεύομ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 (29절) 그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Λέγουσι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보소서 지금은 당신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ἴδε νῦν ἐν παρρησίᾳ λαλεῖς καὶ παροιμίαν οὐδεμίαν λέγεις·)
- (30절) 지금 우리가 알았습니다 (νῦν οἶδομεν)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ὅτι οἶδας πάντα καὶ οὐ χρεῖαν ἔχεις ἵνα τίς σε ἐρωτῇ.)

이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습니다 (ἐν τούτῳ πιστεύομεν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ξῆλθες.)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Ἰησοῦς.)

너희가 지금 믿느냐? (ἄρα πιστεύετε.)

(32절) 보라 때가 왔고 이르렀다 (ἰδοὺ ἔρχεται ὥρα καὶ ἐλήλυθεν)

그 결과 너희들은 각각 너희들의 장소로 흩어질 것이다 (ἵνα σκορπισθῆτε ἕκαστος εἰς τὰ ἴδια)

그리고 나를 홀로 남겨 놓을 것이다 (καὶ ἐμὸν ἀφήτε.)

그러나 나는 홀로가 아니니 (καὶ οὐκ εἰμι μόνος.)

이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ὅτι ὁ πατήρ μετ' ἐμοῦ ἐστιν.)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 (ἵνα ἐν ἐμοὶ εἰρήνην ἔχητε.)

너희가 이 세상 안에서 환란을 당한다 (ἐν τῷ κόσμῳ θλίψιν ἔχετε.)

그러나 담대하라 (ἀλλὰ θαρσεῖτε.)

내가 세상을 이겼다 (ἐγὼ νενίκηκα τὸν κόσμο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6-27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날에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은 어제일까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날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그 동안 제자들은 하나님께 어떤 간구도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만을 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가고 그 대신 그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령님이 오시면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때문이지요.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sup>10</sup>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sup>11</sup>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sup>12</sup>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sup>13</sup>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sup>14</sup>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고전 2:10-14).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 인간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나의 구원이 믿어지며,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에 앞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sup>5</sup>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sup>6</sup>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sup>7</sup>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sup>8</sup>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전 2:4-8).

이는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인간들의 능력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물론 처음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구세주 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일도 성령님의 몫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단계로부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 모두를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삶 순간 순간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삶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까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27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문법적으로 현재완료형을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든 그들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왔고 그 사랑은 지금 예수님이 고별사를 하는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전체를 아무리 읽어 보아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기록도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황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세상적 욕망을 노출시켜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랑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파오가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면 필레오는 동반자간의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간의 친근함을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신 것은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를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외톨이처럼 고난 받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할 운명이 될거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그들의 실제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길을 걷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삶의 궤적 전체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받으셨기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거나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up>24</sup>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sup>25</sup>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sup>26</sup>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4-26).

당신은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계시나요? 정말로 복음이 당신의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